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 오로지 이기심만을 가르쳤기에

새때 같았다. 부딪치는 소리는 오케스트라였다. 도토리나무를 비롯한 각종 활엽수 이파리들이 이는 바람결에 온 하늘을 뒤덮으며 하강하는 모습이, 자연의 대서사시였다.

이 장관을 언어로 다 풀어낼 수가 없었다. 안타까웠다. 하지만 마음이라도 새겨뒀기에 기억력이 미치는 순간까지는 안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스스로 지워왔다.

어느 짙은 가을날 오후, 광주 사직공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 날 오후 아파트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조그만 동산을 봤었다. 그때 갑자기 까담뚱을 서글픔이 밀려왔다. '나는 누구인가,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뭘했을까' 등등의 상념들과 함께, 그러면서 우울해졌다. 외로운도 겹쳐졌다.

부리나케 병거지를 쓰고 그 자리를 탈출했다. 광주천변을 지나

사직공원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봤던 것이다.

그때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유난히도 눈에 밝았다. 지팡이를 짚고서 활강하는 낙엽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11월 하순의 상당히 차가운 날씨임에도 옷이 얇아 보였다. 웬지 모르게 가슴이 아렸다.

혹시 과거의 영화로웠던 날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자녀들의 돌봄 없이 지내는 현재의 모습이 고달파서 슬퍼하는 것이었을까. 갖가지 상념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급속도로 고령인구가 높아져 가는 작금의 상황.

이미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머잖아 초고령 사회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통계청의 추계치가. 하지만 노인 복지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녀로부터 학대받는 노인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빈곤 노인,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더욱 그렇다. 설령 경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흐르는 세월 앞에서는 건강과 인지능력까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자녀들로부터 배척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지만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건 폭력, 유기 등 학대라는 것.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되고 있다.

각종 통계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31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65세 이상 노인 학대 건수는 총 5,188건이었다.

5년 전인 2014년(3,532건)에 비

해 1,656건이 늘었다. 무려 32%나 증가했다. 노인 학대 발생장소 중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9.0%에 달했다. 학대자 4명 중 1명은 아들이었다. 가해자는 아들, 배우자 순이었다. 가족들이 대부분이다. 가족의 특성상 밝혀지지 않는 사례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사직공원에서의 낙엽들의 군무. 참으로 아름다운 서정을 자아내게 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쓸쓸함을 쏟아내는 벤치의 노인들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줬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잘못된 교육이 아닐까. 물론 이외에도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지만, 과거 사회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형제들과 지내면서 질서를 배웠다. 또래들과 어울려 놀면서 사회규칙도 배웠다. 조부모를 통해서 도덕과 효를 배웠다. 집안제사 등을 통해서는 조상과 일가친척을 배웠다.

이런 가운데에서 올바른 인성을 확립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기회가 거의 없다. 누가 그랬는가. 우리를 자신이다. 오로지 이기심만을 가르쳤기 때문에, 또는 무관심했다. 때문에 교육방법을 바꿔야 한다. 지금 당장.

### 社 說

### 보건의료 분야 환경 개선 필요

수습 간호사에 대한 가혹행위 인 이른바 '태움'을 초래한 보건의료 분야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니 기대를 걸어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하 업종별 위원회인 '보건의료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보건의료위원회의 발족은 보건의료 분야 인력이 부족해 노동 환경이 나빠지고 이는 보건의료 서비스 전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위원회는 이날 발족식과 함께 개최한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논의할 주요 의제를 ▲ 보건의료 분야 노동 환경 개선 ▲ 임금 실태 파악과 임금체계 개선 ▲ 업무 조정과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등 근무 방식 개선, 적정 인력 확보, 간호사 태움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이다. 지역, 규모, 직종별 임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위촉됐다. 이 밖에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의료노련 간부를 포함한 근로자위원 4명, 서울대병원 원장 등 사용자위원 4명, 노동부·복지부 국장급 정부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간사위원 1명 등이 참여한다.

경사노위의 목표는 일하는 국민이 대접받고 불합리한 격차가 해소되며 사회안전망이 튼튼한 미래를 만드는 것으로 이번 보건의료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2기 경사노위 운영이 본격화했다 할 것이다.

경사노위의 목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업종별 위원회인 '버스운수산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경사노위 운영의 본격화로 보건의료 분야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세 (주)남도브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화상은 이렇게 치료하세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은 매우 주요한 수단이 되어 음식물을 조리하고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되어 문명 사회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면서 큰 재앙으로 발생되기도 하는 이 불은 신체에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요리를 하며 기름으로 인해 화상을 입거나 또는 화염에 의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화상은 보이는 부분보다 더 깊은 상처가 발생되어 염증으로 인해 큰 흉터가 남게 될 수도 있다. 화상은 1도부터 3도까지가 있다.

1도 화상은 표피층에서만 손상을 입게 되고 2도는 표피 전층과 진피의 일부만이 손상을 입게 된다.

3도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까지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화상을 입었을 시 대처방법에 대해

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화상은 입을 즉시 피부 속으로 들어간 화기로 인하여 화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어릴 적 된장이나 감자 혹은 소주를 이용한 민간요법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로부터 손상된 피부조직에 감염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악화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화상을 입게 되면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으로 달려가 화상부위를 화끈거리지 않을 때까지 식혀주어

야 한다.

식히면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방문하며, 흐르는 물을 손을 씻어주며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화기를 제거 하고 살균봉이나 깨끗한 천으로 화상부위를 감싸며 차가운 물로 화기를 빼주어야 한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화상일 수도 있지만 화상부위가 넓어져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119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김태현 /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교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